

면명(面名)의 유래(由來)

퇴촌면의 면명은 조선시대(朝鮮時代) 초기의 개국공신(開國功臣)이며 특히 태종(太宗)의 총애(寵愛)를 받았던 한산군(漢山君) 조영무(趙英茂)가 노약하여 정계(政界)를 은퇴하면서 광주(廣州)의 동쪽 마을인 광동리(光東里)로 와서 말년을 보내면서 호(號)를 '퇴촌(退村)'이라고 하였다 한다. 그의 호가 면명(面名)이 된 것이다. 또 『중정남한지(重訂南漢志)』에 의하면, 고려말에 왕(王)씨와 백(白)씨 성을 가진 두 사람의 상서(尙書)가 나라가 패망할 때를 당하여 함께 조정(朝廷)에서 물러나 이 곳에서 살았는데, 지붕을 맞대고 이웃이 되어 살구나무를 수백 그루 심었다고 한다. 그 당시의 마을 이름은 '상서동(尙書洞)' 또는 '행방(杏坊)'이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상서(尙書 고려시대 정3품 문관벼슬)가 퇴촌하여 살았다고 하여 '퇴촌(退村)'이라는 고을 이름이 생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퇴촌면의 위치와 지형 지세

퇴촌면은 광주시청으로부터 약 8km 정도 동북방향에 위치하며, 경안천이 본 면내(面內)를 관통하여 팔당호(八堂湖)로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앵자산(鶯子山)에서 발원하여 우산리(牛山里)·관음리(觀音里) 협곡을 거쳐 유입되는 우산천(牛山川)이 도수리(陶水里)·광동리(光東里)를 거쳐 팔당호로 흘러들어간다. 남으로 초월읍(草月面)의 무갑산(武甲山)과 동으로 앵자산(鶯子山)·우산(牛山)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고, 동쪽으로 국사봉(國思峯)을 중심으로 양 날개를 편 듯 산자수려(山紫秀麗)한 고장이다. 동쪽은 여주군(驪州郡) 산북면(山北面)과 경계를 이루고, 동북방향으로는 영동고개를 넘어 양평군(楊平郡) 강하면(江下面), 서쪽은 광주시 중부면(中部面) 상번천리(上樊川里)와 하번천리(下樊川里)를 경계로 하며, 남쪽은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와 신월리(新月里)에 접하고, 또 실촌읍(實村面) 건업리(建業里)와는 앵자봉을 경계로 하고 있다. 북쪽은 광주시 남종면(南終面) 이석리(二石里) 그리고 하남시(河南市)와 접해 있다.

퇴촌면은 광주시의 특징인 산이 많고, 평야가 적은 곳이나, 농경지는 비교적 많아서, 조선시대의 둔전(屯田)이 정지리(亭支里)·광동리(光東里) 일대에 많이 있었다. 지금도 퇴촌면은 팔당호와 우산리 천진암(天真庵) 계곡 등 수려한 자연경관이 좋아서 도시민들의 일일 휴양지로 각광 받고 있다.

우산리(牛山里)에는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인 천진암(天真庵)이 있어 천주교회에서는 이 곳을 성지(聖地)로 삼아 세계적인 대성당(大聖堂)을 건설 중에 있다. 퇴촌면은 중부면 상변천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경안 IC에서 나와 43번 국도에서 42번 국도로 들어서서 도마리(道馬里)를 거쳐 필당댐을 건너 서울~홍천간 6번 국도와 닿는 도로와 88번 도로가 도마리(道馬里)에서 광동리를 거쳐 영동리(嶺東里)를 지나 양평군(楊平郡) 강하면으로 통하며, 광동리에서 정지리(亭支里)·원당리(元堂里)를 지나 초월읍 신월리(新月里)·선동리(仙東里)·늑현리(勒峴里)를 거쳐 실촌읍 곤지암리(昆池岩里)로 통하는 308번 지방도가 있다. 광동리에서 조선시대 왕실백자 도요지(陶窯趾)이며 사옹원(司饔院) 분원(分院)이 있던 남종면(南終面)으로 통하는 337번 지방도가 개설되어 있다.

퇴촌면의 행정구역과 연혁

퇴촌면의 행정구역은 조선조 광무8년(1904)에는 도마동(道馬洞)·과학동(過鶴洞)·삼정동(三政洞)·족자동(簇子洞)·석림동(石林洞)·석호동(石湖洞)·배알미동(拜謁尾洞)·금사동(金沙洞)·오리동(梧里洞)·동대동(東垔洞)·지위동(支渭洞)·정자동(亭子洞)·지위동(支渭洞)·광복동(光福洞)·도지동(陶池洞)·수동리(水東里)·탑선동(塔仙洞)·상관음동(上觀音洞)·하관음동(下觀音洞)·하우산동(下牛山洞)·상우산동(上牛山洞)·영동리(嶺東里) 등 22개 동리였으나, 일제(日帝)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13개 리·동으로 축소하였다.

- 도마리(道馬里)-도마동을 도마리로 고쳤다.
- 삼성리(三成里)-과학동·삼정동·족자동을 합침.
- 이석리(二石里)-석림동과 석호동을 합침
- 배알미동(拜謁尾洞)- 동부면(東部面)으로 편입함.
- 금사리(金沙里)- 금사동을 금사리로 고쳤다.
- 오리(梧里)-오리동을 오리로 고쳤다.
- 광동리(光東里)-광복동과 동대리를 합침
- 정지리(亭支里)-지위동과 정자동을 합침
- 도수리(陶水里)-도지동·수동리·탑선동을 합침
- 관음리(觀音里)-상관음리와 하관음리를 합침

우산리(牛山里)- 상우산리와 하우산리를 합침

영동리(嶺東里)-영동리를 그대로 둠.

그리고 草月面에 속해 있던 원당리(元堂里)와 무수리(無愁里)를 편입하여 퇴촌면의 행정구역으로 삼았다.

면(面) 행정의 시작은 1912년 관내 이석리(二石里)의 개인가옥에서 집무하다가 광동리로 면사무소(面事務所)를 옮겨 현재도 면사무소가 광동리에 있다.

1956년에는 지방자치가 처음으로 실시되어, 동년 8월 8일에 면장과 면의원선거가 있었는데, 초대 민선 면장에 한이석(韓理錫)이 당선되었으며, 아울러 면의회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의 장 이철규(李喆圭) 퇴촌면 오리

부위원장 안건영(安建英) 도수리

의 원 안호송(安浩松) 도수리

김창식(金昌植) 관음리

최성익(崔成翊) 도마리

임인식(林仁植) 광동리

김진영(金鎭永) 금사리

윤인섭(尹仁燮) 관음리

김만복(金晩福) 원당리

안동수(安東洙) 도수리

장대억(姜大億) 영동리

1972년 팔당댐이 건설되어 광주시 남종면이 수몰(水沒)되는 곳이 많아짐에 따라 1973년 7월 행정구역(行政區域)이 개편되어 퇴촌면 금사리(金沙里)·삼성리(三成里)·이석리(二石里)가 남종면으로 편입되었고, 퇴촌면은 광동리(光東里)·관음리(觀音里)·우산리(牛山里)·영동리(嶺東里)·도수리(陶水里)·오리(梧里)·도마리(道馬里)·무수리(無愁里)·원당리(元堂里)·정지리(亭支里) 등 10개의 법정리(法定里)를 갖게 되었다.

팔당댐이 생기면서 광동리가 많은 면적이 수몰(水沒)되어 지금의 위치로 이주(移住)하게 되었고, 아울러 퇴촌면 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을 뿐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上水源保護區域)이며, 전 지역이 또한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되어 있어 자연(自然)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퇴촌면의 교육기관(教育機關)으로는 초등학교 1개교(도수초교), 중학교 1개교(광수중)가 있다. 우산리에는 도수초등학교 분교가 있었으나 학생수의 부족으로 폐교(閉校)되었고, 지금은 이 지역(地域)의 아동들이 모두 도수초등학교로 다니고 있다. 우산리에는 청소년수련원이 독립(獨立)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여타 수련원들도 산재(散在)해 있다.

아직도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아서 정지리(亭支里) 시설영농단지(施設營農團地)에서는 토마토를 주로 생산하며, 해마다 토마토 축제(祝祭)를 거시적(舉市的)으로 열고 있다.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퇴촌면에 둔전(屯田)이 많아 남한산성(南漢山城)의 수어청(守禦廳) 군량미(軍糧米)를 이 곳에서 많이 공급한 기록이 있다.

성씨(姓氏)의 분포상황을 보면, 오리·도수리·정지리에 순흥 안씨(順興 安氏)와 정지리의 남원 양씨(南原 梁氏)와 청주 한씨(淸州 韓氏), 광동리 관음리의 익산 임씨(益山 林氏), 도수리의 순흥 안씨(順興 安氏)·한양 조씨(漢陽 趙氏), 그리고 영동리의 충주 지씨(忠州 池氏), 도마리의 삭령 최씨(朔寧 崔氏), 원당리의 함양 박씨(咸陽 朴氏)가 퇴촌면의 대성(大姓)이다.

퇴촌면의 문화유적(文化遺蹟)

■ 선사시대유적

퇴촌면은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도마리에서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이 증명되었다.

■ 조선백자도요지

오리(梧里)에서는 고려시대의 유물이 발견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사옹원(司饔院)의 분원(分院)이 남종면 분원리에 있었던 관계로 퇴촌면에는 조선백자 도요지(陶窯地)가 60여 개소나 발견되었는데, 주로 도마리와 관음리, 그리고 우산리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조선백자 주산지의 한 곳으로 보아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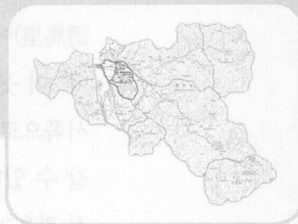
■ 선현들의 묘

예전부터 퇴촌면은 산세(山勢)가 좋아,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의 묘소(墓所)가 많다. 도마리에는 경기도 기념물 제33호인 조선 세종(世宗)대에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에 공이 많은 집현전(集賢殿) 학자이며, 정치가인 문정공(文靖公) 태허정(太虛亭) 최항(崔恒)의 묘가 있고, 영동리에는 경기도 기념물 제145호인 조선 인조(仁祖)대에 영의정(領議政)이며, 조선 중기의 한문학(漢文學) 4대가의 한 분인 문정공(文貞公) 상촌(象村) 신 흠(申欽)의 묘가 있다. 그 외에도 퇴촌(退村)이라는 면명(面名)을 갖게 한 한산군(漢山君) 조영무(趙莢茂)의 묘가 광동리에 있고, 도수리(陶水里)에는 임진왜란(壬辰倭亂)때, 진주사(秦奏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구원을 요청하러 가서 공을 세우고 호조참판(戶曹參判)을 역임한 청계부원군(淸溪府院君) 심우승(沈友勝)과 그 후손들의 묘가 있다. 도마리에는 조선 중종(中宗)대에 좌의정(左議政)을 지낸 안 당(安塘)의 묘가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역사인물들의 묘가 있다.

■ 한국천주교 발상지 천진암

우산리에 있는 천진암(天真庵)은 한국 천주교(天主教)의 발상지(發祥地)이며, 성지(聖地)로서 많은 천주교 성인(聖人)들의 묘소가 있고, 백년대계로 성당(聖堂)을 건설하고 있으며, 지금도 참배객(參拜客)이 줄을 잇고 있다.

1. 광동리(光東里)



마을의 유래와 위치

조선조 말 대한제국(大韓帝國)시대까지는 광복동(光福洞)과 동대동(東垔洞)으로 2개 마을이었다. 1914년 일제 강점기에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면서 광복동의 ‘광(光)’과 동대동의 ‘동(東)’을 따서 ‘광동리(光東里)’라고 리명(里名)을 만들었다.

퇴촌면(退村面)소재지로서 면사무소(面事務所)와 경찰지서·우체국·농협이 이 마을에 소재하고 있다. 8·15광복 후 1960년대까지는 이 마을에 5일장이 섰다. 매 5일과 10일에 장이 섰으나, 제대로 유지가 안 되어 폐쇄되었다가 지금은 5, 10일에 규모는 작으

나 장(市場)이 서고 있다.

1973년 팔당댐이 건설되면서 이 마을의 일부가 수몰되어 농경지가 많이 줄어들었다.

중부고속도로 경안 나들목에서 45번 국도를 따라 도마치 고개를 넘어 도마리(退村面 道馬里)에서 88번 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가면서 광동교(光東橋)를 건너면 광동리가 나온다. 이 곳에서 337번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가면 오리를 거쳐 남종면 분원리에 이른다. 서쪽으로는 정지리(亭支里)와 연결하고 있으며, 108번 도로를 따라 실촌읍 곤지암리로 갈 수 있다. 88번 도로는 양평군 강하면 방면으로 향하고, 아울러 천진암으로 올라가면 서 관음리와 우산리가 연결된다.

마을의 문화유적

■ 조영무(趙英茂)의 묘



조영무 묘 전경

광동리 산16번지에는 조선 개국공신(開國功臣) 한산부원군(漢山府院君) 조영무(趙英茂)의 묘가 있다. 조영무는 조선 개국시에 1,2차 왕자(王子)의 난(亂) 때에 이방원(李芳遠)을 도와 승리하는데 크게 공헌하여 태종(太宗)의 지극한 총애를 받아 관직이 우의정(右議政)에 이르렀고 시호(諡號)는 충무(忠武)이다. 말년에 이 마을에 와서 은거(隱居)하였는데, 그로 말미암아 퇴촌(退村)이라는 지명(地名)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 여여길(呂與吉) · 여우길(呂祐吉)의 묘

광동리 산19번지에는 조선 인조대(仁祖代)의 문신(文臣)으로 성혼(成渾)의 문인이며 선조(宣祖)24년(1591)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역임한 여여길(呂與吉)의 묘와 그의 후손들이 현달하여 가문을 빛내었고, 묘소가 여러 분상 있다.

또 같은 장소에 여여길의 아우인 여우길(呂祐吉)의 묘가 있는데, 그는 선조(宣祖)24년

문과에 급제하고, 선조40년(1607)에 경상도관찰사 시절에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로 일본에 건너가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 강화(講和)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돌아올 때는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던 조선군(朝鮮軍) 1,000여 명을 데리고 왔다.

그의 당시 통신사로 갔을 때의 일기(日記)가 남아 있다.

광동리 346번지에는 수령이 220년 된 느티나무가 광주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 광복동(光福洞)-광백이(광동2리)

예전부터 이 마을은 산수(山水)가 아름답고 들판이 넓어 항시 밝은 빛이 비추고, 풍년을 이루어 와서 복 받은 마을이라 하여 광복동이라고 불려왔다.

이 마을에는 한양 조씨(漢陽 趙氏)와 함양 여씨(咸陽 呂氏)가 세거하여 오고 있다.

■ 동지별말-별말(광동1리)

병자호란(丙子胡亂) 때에 인조(仁祖)가 남한산성(南漢山城)에 진을 치고 있을때에 군량미(軍糧米)를 보급하는데, 이 곳이 평야지대로서 수확이 많아 광주(廣州)에서 군량미를 제일 많이 보냈다고 한다. 그 후 동쪽에 있는 넓은 마을 이라고 하여 ‘동지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광동리의 중심 마을이다. 이 마을은 익산 임씨(益山 林氏)와 한양 조씨가 대성(大姓)을 이루고 있다.

■ 웃광백이마을

광복동의 위쪽에 산 밑으로 5~6호의 인가(人家)가 있는 마을을 말한다. 광백이 위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탑골마을

현 면사무소가 있는 부락이다. 익산 임씨(益山 林氏)들의 집성촌이다. 예전에 이 마을에 탑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양지말

광백이마을의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응달말

광복동(광백이)의 북쪽 음지(陰地)에 형성된 부락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광동교(光東橋)

도마리(道馬里)에서 광동리로 가려면 이 다리를 건너야 한다. 이 다리는 예전에는 자그마하였으나, 팔당호가 생기면서 큰 다리가 놓이게 되었다.

■ 동벽소(沼)

도수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에 있었던 소(沼)인데, 동쪽에 있는 큰 소(沼)라는 뜻이다. 예전에는 물이 깊었으나 지금은 하천이 변형되어 없어졌다.

■ 살구지

광동리에서 정지리(亭支里) 방향으로 가면서 왼쪽에 있는데, 옛날 살구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장터

8·15광복 후 형성된 5일장이 섰던 터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이 폐쇄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장이 서게 되었으나, 옛 장터는 주택이 들어서고 지금의 장이 서는 곳은 별말의 다른 곳이다.

■ 삼태기산

광백이마을 응달말 뒷산을 말하는데, 얇은 산이지만, 모양이 삼태기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국사봉(國思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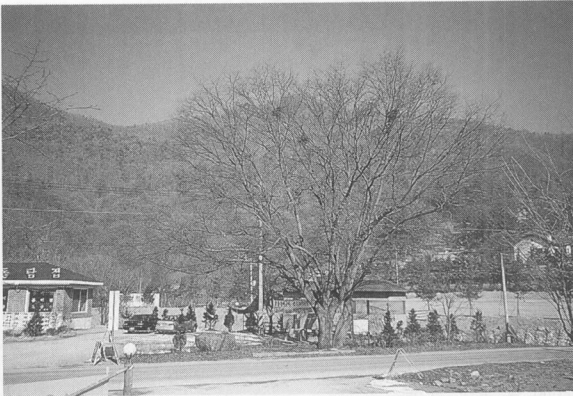
국사봉 정상에 올라가 보면, 동쪽으로 도수리, 남쪽으로는 광동리, 서쪽으로는 오리, 북쪽으로는 금사리가 보인다. 예전에 낙향하여 퇴촌에 살던 문관들이 국사봉에 올라 나라 일을 걱정하며 사방을 둘러보았다는 전설이 있다.

■ 사만절

국사봉 밑에는 예전에 절이 있었는데, 신도가 무려 사만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절간에 빈대가 많아 절이 폐쇄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 부처골

광동리와 정지리 사이에 있는 골짜기인데, 이 곳에 동자(童子)불상(佛像)이 있었는데, 현재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으로 이설(移設)하여 없어졌다.



관음리 느티나무 전경

마을의 문화유적

■ 조선백자 도요지

이 마을은 조선시대에 백자를 굽던 도요지가 여러 곳 발굴되었다. 이 마을에서 발굴된 도요지만 해도 35개소가 된다. 발굴된 유물을 보면 상감백자·분청사기·철화백자 등 조선시대에 사용원(司窰院)에서 사용하던 모든 자기(磁器)가 이곳에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16개

소는 문화재청에 의하여 사적지로 지정되었다.

■ 관음골(觀音谷)

예전에 <관음사(觀音寺)>라는 사찰이 있어서 '사관골(寺觀谷)' 이라고도 하였으나, 지금은 '관음골' 이라고 부른다. 관음1리이다.

■ 넘말

관음2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개울 너머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도장골마을

관음3리 마을인데, 안 도장골과 바깥 도장골이 있다. 도장이란 몰래 장사지낸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 광대모이계

예전에 이 곳에 살던 광대가 죽어 문히자 광대의 묘가 있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관음2리에 있는 산모퉁이이다.

■ 명학골(鳴鶴)

관음3리 좌측에 있는 골짜기를 말하는데, 이 곳에 전에는 학이 많이 날아와서 학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는 골짜기라 하여, ‘명학골(鳴鶴)’이란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 백성산(白成山)

관음3리에 있는 깊은 산속인데, 예전에는 난리 때 피난처였다. 백씨와 성씨가 이 산 밑에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아들바위

관음3리에 있는 큰 바위인데, 바위에 돌을 던져 바위 위에 올라가면 이들을 낳고, 돌이 땅에 떨어지면 딸을 낳는다는 전설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수천이골

관음3리에 있는 깊은 산골짜기를 말한다.

■ 서낭당이

관음2리에 있는 서낭당을 방언으로 ‘서낭당이’라고 부른다.

■ 입꾸지

관음3리에서 천진암으로 올라가는 우측 입구를 말한다.

■ 중투말

관음1리의 중간에 있는 마을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 하래비소(沼)

관음3리 우천에 있는 소(沼)를 말하는데, 예전에 물이 깊어 어떤 할아버지가 빠져 죽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할미소(沼)

하래비소 밑에 있는 소(沼)인데, 할머니가 빠져 죽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행당골고개

관음3리의 안도장골에서 양평군 강하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 가마소

관음1리에 있던 옛날 개천인데, 소(沼)가 깊어서 혼행(婚行) 가마가 빠졌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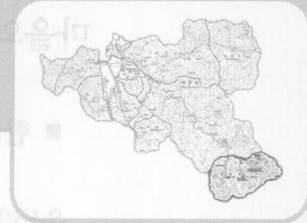
■ 작은 염티고개

관음리에서 정지1리 정자마을로 넘어가는 고갯길을 말한다.

■ 큰염티

관음리에서 도수리와 정지리로 넘어가는 고갯길을 말한다.

3. 우산리(牛山里)



마을의 유래와 위치

조선시대에는 상우산동(上牛山洞)·하우산동(下牛山洞)으로 행정구역이 2개 마을이 었으나, 1914년 일제 강점기에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면서 우산리 1개 리로 만들었다.

이 마을의 주위는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산 모양이 마치 소가 드러누운 것 같은 와우형(臥牛形)이라 하여 ‘우산(牛山)’이라는 마을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이 마을은 천진암(天真庵)이 있는 마을로서 관음리와 연결하여 있고, 실촌읍의 건업리와 앵자봉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영동리(嶺東里)와 경계하고 있다. 퇴촌면

에서 막다른 마을이다.

마을의 문화유적

■ 한국 천주교 발상지 천진암(天真庵)

우산리 500번지에는 천진암지(天真庵址)가 있다. 천진암은 언제 창건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다만 이 곳에서 공부하던 이 벽·이승훈·정약중·권철신·권일신 등 천주교인들이 참수되면서 폐사(廢寺)된 듯하다. 『여지도서(輿地圖書)』와 『가람고(伽藍考)』에는 '주(州)의 동쪽 40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한국사찰전서(韓國寺刹全書)』에는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앵자산(鶯子山)에 있으나 수십 년 전에 폐하였다'고 적혀 있다. 또한 『중정남한지(重訂南漢志)』에는 '앵자산에 있는 고찰(古刹)로 종이를 만들며, 사옹원(司饗院)에 속해 있다'고 전하고 있다. 천진암은 18세기 중엽, 녹암(鹿菴) 권철신(權哲身)을 중심으로 한 남인계(南人系) 학자들이 강학(講學)을 가졌던 곳으로 주로 유교경전(儒敎經典)과 함께 당시 전래된 한역(漢譯) 서학서(西學書)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시작되면서, 점차 천주교(天主敎)와 관련되어 천주교 신앙으로 발전하였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역시 이 곳에서 공부하였고, 그는 자주 이 곳을 방문하였던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그의 저서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 천진암과 관련된 시문(詩文)이 여러 편 전해지고 있으며, 그 당시 이미 퇴락(頹落)한 천진암의 모습을 표현한 시문도 많이 남아 있다. 이후 완전히 폐허가 되었으나 1960년대 초에 절터가 확인되었고, 1979년~1981년

사이에는 이 벽·권철신·권일신·정약중·이승훈 등 한국천주교회 초기인물들의 묘소가 이곳으로 이장되면서 천주교의 성지(聖地)로 자리 잡았고, 백년대계로 이 곳에 대성당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 천주교 성현오위(聖賢五位) 묘

우산리 앵자봉 자락에는 천주교 100년 계획 한민족 대성당 건립부지가 조성되어 있다. 옛 천진



천진암 성현오위 묘 전경

암터에는 한국 천주교 창립 선조인 丁若鍾(1760~1801) · 李承薰(1756~1801) · 李蘖(1754~1786) · 權哲身(1736~1801) · 權日身(1742~1791)의 묘가 있다. 원래는 경기도 포천군에 있던 것을 1979년 현재의 장소로 이장하였다. 각 묘소마다 봉분에 장방형의 호석을 돌렸으며, 피장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표석을 세웠다.

■ 조선백자도요지

이 마을에도 조선백자 도요지(陶窯址)가 많이 있다. 이 마을에서 발굴된 도요지가 21개소인데, 15~16세기에 백자를 생산하던 곳이다. 그 중에서 5개소는 문화재청에서 사적으로 지정하였다. 생산 품목을 보면, 상감백자 · 청화백자 대접, 접시, 향아리 등이었다.

■ 박석거리마을

예전에 이 마을에 박씨(朴氏)와 석씨(石氏)가 세거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소미마을

이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산의 형상이 양소형이라 하여 뒷산 봉우리를 양자봉이라고 하는데, 그 산을 ‘소산(牛山)’이라고도 한다. 이 산 밑에 부락이 형성되었는데, 정경이 아름답다고 하여 ‘소미’라고 불리웠다.

■ 절막

양자봉 주위에 여러개의 암자가 있었는데, 이 곳에서 실학자(實學者)이면서 천주학(天主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기거하였다고 한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암자가 천진암(天真庵)이었다. 절의 밑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절막’이라고 불리웠다.

■ 뒷골

소미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 우산천(牛山川)

이곳 우산리에서 발원하여 퇴촌면 관음리와 도수리, 그리고 광동리를 거쳐 팔당호로 들어가는 하천을 '우산천' 이라고 한다.

■ 매내미

소미마을에서 우산천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매내미' 라고 부른다.

■ 고로지골

현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야영장이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감박산

소미마을 뒤에 있는 산을 말한다.

■ 개내미고개

우산리에서 실촌읍 건업리로 넘어가는 산고개를 말한다.

■ 너내미

'느내미' 라고도 부른다. 광주시와 양평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봉우리를 말한다.

■ 논골

느내미에 있는 골짜기를 말하는데, 골짜기에는 작은 논배미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두루박골

고로지에 접해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막탁골

느내미 골짜기 속에 작은 골짜기를 '막탁골' 이라 부른다.

■ 무래비고개

매내미골에서 초월읍 무갑리 '무래비마을' 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 백성시

매내미 마을에 있는 산이름이다.

■ 솟돌비골

무래비고개 올라가는 중간에 있는데, 예전에는 이 곳에서 백회(白灰)를 구웠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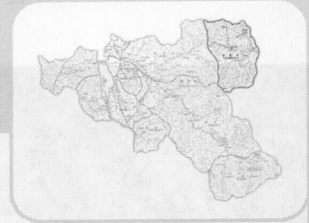
■ 앵자봉(鶯子峯)

해발 667m의 산인데, 아름다운 피꼬리가 알을 품고 있는 형상 같은 산세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천주교 천진암성지 위의 제일 높은 산봉우리를 말한다.

■ 관산

우산리의 소미 마을 건너에 있는 산이다.

4. 영동리(嶺東里)



마을의 유래와 위치

이 마을은 조선 초기에 광주목사가 이 곳을 지나면서 동쪽에 있는 고개너머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영동리' 라고 불러왔다. 예로부터 거머골·구룡동·석둔 등 3개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퇴촌면에서 88번 지방도를 따라 양평 방면으로 가면서 영동고개(일명 염티고개)를 넘어가면 영동리에 이른다.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충주 지씨(忠州 池氏)의 세거지이기도 하다.

마을의 문화유적

■ 신 흙(申 欽)의 묘



신흙 묘 전경



신흙 신도비

이 마을에는 경기도 기념물 제145호인 신 흙(申 欽) 선생의 묘가 있다. 신 흙은 조선 인조대(仁祖代)의 문신(文臣)으로 본관(本貫)이 평산(平山)이고 호(號)는 상촌(象村)이며 시호(諡號)는 문정(文政)이다. 선조(宣祖)19년(1586)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 임진왜란 때에는 도체찰사(都體察使) 정철(鄭澈)의 종사관으로 활약했고 이후 노서(老西)의 중심인물로 대사간(大司諫), 도승지(都承旨)등을 역임 하였고, 광해군(光海君) 때는 영창대군의 유배를 극력 반대하다가 귀양을 갔었다. 인조반정(仁祖反正) 후에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지내고 대제학(大提學)을 거쳐, 영의정(領議政)에 이르렀다. 선조(宣祖)가 영창대군의 보필을 부탁한 유교칠신(遺教七臣)의 한 사람이다. 문장에 능하여 이정구(李廷龜), 이 식(李植), 장 유(張 維)와 함께 조선중기(朝鮮中期)의 한문학(漢文學) 4대가의 한사람으로 꼽힌다. 그의 묘(墓)와 장 유(張 維)가 찬한 신도비(神道碑)가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또한 2004년 2

월의 문화인물로 지정되었다.

■ 거먹골-거북골

이 마을의 중앙에 커다란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못 속에는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으면서 마을에 흉사가 생기면, 모습을 나타내어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거북골'로 부르다가 전해내려 오면서 '거먹골'로 변했다고 한다.

■ 구룡동(九龍洞)

전해오는 설화로 이 마을이 옛날 바다였다가 육지가 되었는데, 커다란 못이 하나 생겨 그 곳에 용이 아홉 마리가 살았다고 한다. 한 번은 열흘 동안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온 마을이 물에 잠길 지경인데, 그때 아홉 마리의 용이 승천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구룡동'이라는 마을이름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 석둔(石屯)

예전에 이 마을이 싸움터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 돌로 진을 쳐서 적을 크게 이긴 후부터 '석진(石陣)'으로 불려 왔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석둔'이라고 변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일설에는 이 마을 뒷산에서 돌이 많이 나서 '석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 군두봉

영동리 서쪽에 있는 산봉우리를 말한다.

■ 엽티고개-영동고개

'영동고개'라고도 하며, 퇴촌면 도수리에서 영동리로 넘어가는 큰 고개를 말한다.

마을의 문화유적

■ 조선백자 도요지

이 마을에는 15~16세기에 조선백자(朝鮮白磁)를 굽던 도요지(陶窯趾)가 9개소 발굴되었다. 발굴된 유물을 보면, 청화백자·분청사기·철화백자 등 다양한 사기(砂器)를 굽던 가마터였다. 그 중 3개소는 문화유적으로 지정되었다.



심우승 묘 전경

■ 심우승(沈友勝)·심액(沈諤)의 묘

도수리 산70번지에는 심우승(沈友勝)의 묘와 신도비(神道碑)가 있는데, 심우승은 조선 선조대(宣祖代)의 문신(文臣)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다. 1580년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 임진왜란(壬辰倭亂)이 발발하자 진주사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구원을 요청하러 다녀왔다. 이후 승지(承旨), 호조참판(戶曹參判), 경기도 관찰사(京畿道觀察使)를 역임하였다.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책훈되고 청계부원군(靑溪府院君)에 봉해졌다. 그의 아들 심액(沈諤)의 묘도 나란히 있는데, 그는 효종대(孝宗代)의 문신이며, 대사헌(大司憲)과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역임하였다.



심액 신도비

■ 순흥 안씨 묘역

안향(安珦)의 7대손인 안근(安瑾)의 묘는 도수리 산72번지에 있는데, 그는 무과(武科)에 급제하고 관직이 군기시부정(軍器寺副正)을 역임하였고 그의 후손들의 묘가 같은 묘역(墓域)내에 있다.

■ 숙안공주(淑安公主)의 묘

조선 세종대의 인물로 회천위(懷川尉) 황유(黃裕)의 묘와 그의 부인 숙안공주(淑安公主)의 묘가 도수리 산75번지에 있는데, 황유는 태종(太宗)의 사위이고, 숙안공주는 세종대왕(世宗大王)의 누이이다.



숙안공주 묘 전경

■ 도지동(陶池洞)

예전에 이 마을 앞에 연못이 하나 있었고, 그 연못가에 도자기를 굽던 가마가 있어서 그 연못의 이름을 '도지(陶池)' 라고 불렀는데, 그로 인해 마을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광동리에서 88번 도로를 따라 천진암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도수교(陶水橋)를 건너 왼쪽에 있는 마을이다. 순흥 안씨(順興 安氏)의 집성촌이며, 도수1리이다.

■ 수동리(水東里)-참샘이

조선조 초기부터 불려온 이름인데, 이 마을에 살던 김생원의 집 안마당에서 물이 솟아 올라 샘을 파고 보니 그 물이 매우 차고 맑아서 '참샘' 이라고 했으며, 이 마을을 '수동리' 라고 부르게 되었다. 도수초등학교와 광수중학교가 이 마을에 있다. 도지동에서 남쪽으로 연해 있고, 농경지가 비교적 많아서 풍요로운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농경지에 많은 주택들이 들어서 있다.

청송 심씨(靑松 沈氏)의 집성촌이며, 심우승(沈友勝)의 묘가 이 마을에 있다. 도수2리이다.

■ 삼백골(三白谷)

예전에 이 마을에 백(白)씨 성을 가진 사람이 세 사람 살았다고 하는데, 이들은 부유하게 살면서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인정이 넘쳐 존경을 받고 살았다. 그래서 이 마을 이름이 '삼백골' 이 되었다고 한다.

88번 도로를 따라 양평방면으로 좌회전 하면서 처음 닿는 마을이다.

전주 이씨(全州 李氏)가 대성(大姓)을 이루고 있다. 도수3리이다.

■ 탑선동(塔仙洞)-탑선이

조선조 초기에 이 마을에 탑이 있었는데, 그 부락에 살고 있는 선남선녀(善男善女)들이 이 탑 앞에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백골에서 양평 방향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에서 조선백자(朝鮮白磁) 도요지(陶窯趾)가 8개소 발굴되었으며, 도수3리이다.

■ 능안

참샘이(도수2리)의 심우승 묘 밑에 있는 골짜기인데, 심우승의 묘가 능(陵)과 같이 모셔져 있어 '능안'이라고 불려왔다.

■ 기새울

도지동에 있는 골짜기인데, 예전부터 순흥 안씨의 묘를 관리하던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

■ 동동산

참샘이 마을에 있는데, 산이라기보다 조그마한 구릉인데 마치 물동이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 곳에 개인 묘가 1기 있다.

■ 된양지

도수3리에 있는데, 양지가 바르고 벌이 잘 들어서 붙여진 이름인데, 골짜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된양지'가 되었다고 한다.

■ 마산(馬山)

참샘이에 있는 산인데, 능선 모양이 말잔등과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사기장골(砂器匠谷)

도수3리의 된양지 옆에 있는 마을인데, 옛날 사기장이(도공)들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하랑방-학아동(學兒洞).

참샘이(도수2리)의 도수초등학교가 있는 자리이다. 예전에는 서당이 있었는데, 이 곳에 글공부하러 학동들이 모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삼한절

도지동(도수1리) 국사봉 밑에 예전에 3간정도 되는 작은 절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절은 없고 이름만 남았다.

■ 섬말

참샘골의 산 밑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참샘이 마을과 동떨어져 있어 '섬말'이라고 불려왔다.

■ 쇠매기-쇠뫼기

88번 도로를 따라 영동고개(염티고개)를 오르기 전에 있는 마을인데, 예전에는 이곳에 풀이 많이 나서, 소먹이를 이 곳으로 베러왔다고 한다. '소의 먹이'란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 '쇠매기-쇠뫼기'가 되었다.

■ 오래실마을

도수2리의 있는 작은 부락인데, 이 곳은 한양 조씨(漢陽 趙氏)와 익산 임씨(益山 林氏)들이 세거(世居)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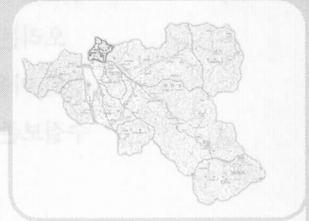
■ 지새울 마을

도지동(도수1리)에 있는 작은 마을로, 순흥 안씨(順興 安氏)의 재각(齋閣)이 있고, 묘지기들이 살던 마을이다.

■ 국사봉(國思峯)

도지동의 뒤에 있는 산인데, 도수리와 오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 봉우리이다. 이곳에서 옛날 몰락하여 이곳에 와서 우거하던 선비들이 이 산에 모여 나라일을 걱정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6. 오리(梧里)



마을유래와 위치

‘오리(梧里)’라는 마을 이름은 안 가루개에 큰 오동나무가 있어서 ‘오동나무골’이라고 불려 왔는데, 한자(漢字)로 동리이름을 지으면서 ‘오리(梧里)’라고 하였다. 1950년대까지도 이 오동나무가 있었다. 또 예전에 한문(漢文)으로 표기된 것을 보면, 일명 ‘갈현(葛峴)’이라고도 하였다. 이 마을은 1972년 팔당댐이 건설되면서 농경지가 많이 수몰되어 주민들이 많이 떠났고, 지금은 30여 호가 살고 있다.

자연부락으로는 안가루개·넘말(양짓말)·셋골 등이 있다.

마을이 처음 배포 된 것은 조선 중기에 순흥 안씨(順興 安氏)들이 입향(入鄕) 하여 이루었고, 지금도 순흥 안씨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한산 이씨(韓山 李氏)도 조선조 후기에 양근군수를 지낸 이석근(李石根)이 마을에 들어와 후손들이 세거(世居)하여 오고 있다.

우리는 퇴촌면 광동리에서 337번 지방도를 따라 남중면 방향으로 가면서 도로변에 형성된 마을로서, 팔당호와 연해 있는 마을이어서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이며 또한 팔당호 수질보존대책지역 1권역에 속하여 개발이 철저히 제한되어 있다.

마을의 문화유적

■ 조선백자 도요지

우리는 조선시대에 조선백자를 생산하던 도요지(陶窯地)가 3개소가 발견되었다. 남중면 분원리에 사용원(司饗院) 분원(分院)이 있어 조선시대에는 도자기의 생산도 활발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 안가루개마을

가루개 라는 지명(地名)이 생긴 것은 마을 앞을 지나는 새길(신작로)이 개통되면서 길이 동리를 가로질러 났다고 하여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

‘안쪽에 있는 가루개’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고 ‘오동나무골’이라고도 한다.

지금도 5호가 거주하고 있다.

■ 셋골

오리(梧里)의 중심 마을이다. 이 곳을 ‘가루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현재 20여 호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넘말-양짓말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셋골’에서 보면 건너편에 있다하여

‘너머마을’이 변하여 ‘넘말’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 10여 호가 거주하고 있다.

■ 성황당고개

오리에서 남중면 금사리(金沙里)로 가는 고개를 말하는데, 이 고개가 금사리와 경계지점이 된다. 예전에는 ‘송이재(松耳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 곳에 성황당이 있었기 때문에 ‘성황당고개’라고 불려왔다.

■ 수정골

오리에서 남중면 금사리로 가다가 길 옆에 있는 골짜기인데, 맑은 물이 나오는 골짜기라 하여 ‘수정골’이라고 하였다.

이 수정골에는 전설이 있다, 수정골 위로 올라가면 ‘국사봉(國思峯)’ 또는 ‘국사산(國思山)’이라고 부르는 산봉우리가 있는데, 예전에 세력에 몰려 낙향(落鄕)하여 사는 벼슬아치들이 퇴촌에 살면서, 언제 자기들을 해치려고 들어올지 몰라 늘 경계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다.

■ 사만절터

오리에서 광동리로 나가는 곳에 골짜기가 제법 큰 것이 있는데, 이 곳에 예전에 스님들이 4만 명이나 있었던 절터가 있었다고 전한다. 전설로 전해오는데, 그 절이 없어진 이유가 빈대가 기둥을 다 파먹을 정도로 많아서 견딜 수가 없어 절에 불을 지르고 없앴다고 한다.

■ 겨리소(沼)

여기에서 소(沼)라는 것은 깊은 웅덩이를 말하는데, 이 마을 농바위들 앞에 있는 강 옆 밭을 가는데, ‘겨리소(두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가 밭을 갈아야 하는 큰 밭 옆에 있는 물 웅덩’이라는 뜻이다.

■ 봉바위

바위의 모양이 마치 부엉이가 자리 잡고 앉아 있는 모양이라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 대장고개

오리 마을에서 광동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하는데, 고개를 넘으면 광주시 보건소 퇴촌지소가 있다. 예전에 이 곳에 대장간(농기구 제조·수리)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마산(馬山)

넘말 남쪽에 따로 떨어져 있는 동산인데, 산의 형세가 마치 말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농바위-농바위들

오리 서쪽 넓은 들판의 맞은편 산에 둥글고 높은 큰 바위를 말한다. 바위에 큰 굴이 있어서 겨울에는 산짐승들의 보금자리였다. 이 곳에서 밑으로 펼쳐진 들판을 ‘농바위들’ 이라고 한다.

■ 삼밭나들이

셋골에서 경안천 하류 쪽으로 예전에는 삼밭(麻田)이 많았으며, 마을의 부녀자들의 빨래터가 있었다.

■ 수안개

지금은 수몰되었으나, 논이 많은 들판이고, 강가에 있어서 늘 안개가 자욱하게 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앞가루개

넘말을 '앞가루개' 라고도 한다.

■ 외동산

넘말 앞의 외따로 떨어진 산 이름이다.

■ 학소(鶴沼)

오리의 북쪽에 위치하며, 예전부터 학이 모여드는 늪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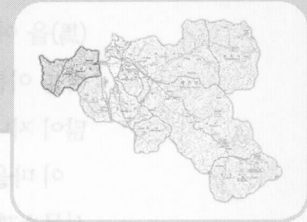
■ 동산너머골

셋골에서 팔당호쪽으로 내려가면서 우측으로 형성된 골짜기를 말한다.

■ 도튼여골

동산너머골의 좌측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7. 도마리(道馬里)



마을의 유래와 위치

도마리(道馬里)라는 지명(地名)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유래(由來)가 전해온다. 조선시대(朝鮮時代)의 대표적인 광주읍지(廣州邑誌)인 『중정남한지(重訂南漢志)』에는 도마치고개의 한자 표기가 '도마치(倒馬峙)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말이 넘어진 고개'라는 뜻이다. 이에 관한 전설로는 예전에는 광동리에서 우천(牛川)을 건너 도마리에서 도마치(倒馬峙)를 넘어 중부면 엄미리(奄尾里)를 거쳐 남한산성(南漢山城)을 가는 길이었는데, 도마치 고개가 너무도 가파르고 험하여 말이 고개를 넘다가 여러번 넘어지는 일이 발생

하여 이런 이름이 생겼다는 설화가 전해오고 있고, 또 일설에는 이 마을에 여우가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있어 어느 도공(陶工)이 여우를 잡아 죽이자, 죽은 여우의 혼이 다시 사람을 괴롭혀서, 그 여우의 혼을 누르기 위하여 도공(陶工)이 도자기(陶磁器)로 만든 말(馬)을 여러 개 만들어 고개에 세웠다고 한다. 그 뒤로는 여우의 괴롭힘이 없어지고 이 마을 이름을 ‘도마리(陶馬里)’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설화는 예전에 말(馬)이 많이 지나가는 길이어서 ‘도마리(道馬里)’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마을은 퇴촌면사무소에서 서북쪽에 있으며, 마을 앞으로 42번 국도가 지나간다. 면사무소까지의 거리는 88번 도로를 타고 약 3km이며 자연부락은 윗도마치·중간말·아래도마치·양달말·응달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 전체가 40여 호 정도로 전형적인 시골마을이다. 이 마을 아래도마치는 팔당호 상류에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중부면 상번천리(上樊川里)와 경계를 이루고, 남쪽으로 도장골고개를 넘으면 퇴촌면 무수리로 통한다. 동북으로는 남종면(南終面) 삼성리(三成里)와 이어져 있다. 이 마을 뒤로는 검단산(黔丹山) 줄기가 흘러내려와 응달말의 수리골 산들이 마을을 둘러치고 있어 마치 삼태기 속에 마을이 있는 듯한 지형(地形)을 이루고 있다.

도마리의 문화유적

■ 조선백자도요지

이 마을은 조선시대에 조선백자(朝鮮白磁) 도요지(陶窯地)가 발견된 것만 해도 7개소가 된다. 주로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상감청화백자(象嵌青花白磁)와 분청사기(粉靑沙器)를 굽던 가마터가 국립박물관 발굴 팀에 의하여 1966년 발견되어 문화재청에 의하여 사적(史蹟)으로 지정된 곳이 네 곳이나 있다. 이는 이웃인 광주시(廣州市) 남종면(南終面) 분원리(分院里)의 조선시대의 사옹원(司饔院) 분원(分院)에서 관리하던 관요(官窯)였다고 한다. 도마리 250, 251번지 일대에 있다.

■ 선사시대 유적

또한 도마리 113번지 일대에서는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와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유물(遺物)이 경기문화재단의 기전문화재연구원 발굴 팀에 의하여 1998년 발견되었다(기

전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참고)

■ 최 항(崔恒)의 묘

이 마을에는 경기도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된 최 항(崔恒)선생 墓가 있다. 문정공(文靖公) 최 항 선생은 조선 세종대왕(世宗大王)의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倉制)시에 집현전(集賢殿) 8학사 중에 중견 학자로서 훈민정음 창제에 지대한 공을 세웠고, 많은 음운서(音韻書)를 찬술(撰述)한 학자이며, 또한 정치가로서 성종(成宗)때에는 영의정(領議政)을 역임한 분이다. 호는 태허정(太虛亭)이다. 묘는 도마리 산11번지에 있다. 사묘(祀廟)는 도마리 197-8번지에 있고, 재실(齋室)은



최항 묘 전경

〈영모재(永慕齋)〉라고 하는데, 도마리 195번지에 있다. 신도비(神道碑)는 중간말 도로변에 서거정(徐居正)이 찬(撰)한 것이 건립되어있다. 2004년 10월 문화인물로 선정되었다.

■ 안 당(安塘)의 묘

도마리 산22번지에는 정만공(貞愍公) 안 당(安塘)의 묘와 신도비가 있다. 안 당은 순흥 안씨(順興 安氏)로 조선 중종(中宗)대에 이조판서(吏曹判書)를 거쳐 좌의정(左議政)을 역임한 문관(文官)이다. 신도비문(神道碑文)은 울곡(栗谷) 이 이(李瑋)가 찬(撰)하였다고 한다.



안당 신도비

안 당(安塘) : 本貫은 順興, 字는 彦寶, 號는 永慕堂이다. 安珣의 후예로 檢校 · 漢城府尹을 역임한 安璟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成均館 司藝를 역임한 安敦厚이고, 어머니는 成均館 司藝를 역

임한 朴融의 딸이다.朝鮮 中期의 文臣으로 漢城 出身이다. 成宗 11년(1480) 生員이 되고, 이듬해 親試에 及第하였고, 1483년 史官에 보임되어 成宗實錄의 編纂에 참여하였다. 그

뒤 藝文館奉敎 · 侍講院司書 · 全羅道都事 · 刑曹正郎 등을 거쳐 司膽寺 僉正이 되었다. 燕山君 2년(1496)에 司藝로 湖南地方에 나가 凶年으로 굶주린 백성들을 賑恤하고, 그 이듬해에 司憲府掌令이 되었다. 1505년 通政大夫에 올랐다. 中宗 1년(1506)에 燕山君이 革罷하였던 司諫院이 복고되면서 大司諫이 되고, 1507년에 定難功臣 3등에 책록되고 이어 우부승지 · 좌부승지 · 충청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1508년에 順興君에 봉해졌다. 1509년부터 1511년까지 工曹 · 刑曹 · 禮曹의 參判과 大司憲을 여러 차례 역임하였다.

1512년 慶尙道觀察使를 거쳐 1514년 漢城府 判尹이 되어 약 8개월 동안 首都行政을 책임 맡았다. 그해 戶曹判書를 거쳐 1515년 吏曹判書가 되어 舊弊를 革新하고 奔競을 금지시켰으며, 官吏의 登用에 있어 循資法에 구애되지 말고 人才를 발탁할 것을 주장하여 金安國 · 金正國 · 金湜 · 趙光祖 등을 薦舉擢用하였다. 그해 8월 朴祥 · 金淨 등이 中宗의 廢妃愼氏의 復位를 청하였다가 大諫으로부터 탄핵을 받자, 이들을 辯護하다가 그 자신도 大諫으로부터 탄핵을 받았지만 士林들로부터는 推仰을 받았다. 1517년 戶曹判書, 1518년 右贊成 · 右議政에 올랐다. 그 뒤 昭格署의 革罷를 주장하였고, 1519년 靖國功臣의 削勳問題를 贊成 支持하였다. 己卯土禍가 일어나자 領議政 鄭光弼과 같이 趙光祖를 구원하다가 大諫으로부터 탄핵을 받았으나 左議政이 되었다. 그러나 계속된 大諫의 탄핵과 賢良科 설치를 주장한 사람으로서, 세 아들을 모두 薦舉되게 하였다는 허물까지 뒤집어쓰고 罷職당했다. 그 뒤 領中樞府事가 되었으나 1521년 그의 아들 安處謙이 庶姑母의 아들 宋祀連의 고변으로 處刑되면서 連坐되어 絞死刑에 처해졌다.

말이 적고 清廉潔白하며, 옳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積極的이어서 士林들을 많이 登用시켰다. 明宗 때 손자 安珣의 주청으로 赦免 · 復官되었다. 諡號는 貞愍이다.

墓는 廣州市 退村面도마리에 있다.

이 마을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느티나무가 도마리 221번지에 있다. 수령(樹齡)이 550년이나 된다. 이 나무는 예전에 우물에 사람이 빠져 죽어서 그 우물을 메웠는데, 거기서 이 느티나무가 자라났다는 전설이 있다. 광주시 보호수 제77호이다. 최 항 선생의 후손인 삭녕(朔寧) 최씨의 세거지(世居地)였으나 지금은 거의 마을을 떠나고 종손과 몇몇 가구가 살고 있다.

구석기(舊石器) 시대의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아주 먼 옛날부터 이 마을에는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윗도마치마을

도마리의 중심 마을이다. 도마리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30여 호가 살고 있으며, 현재도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버섯재배와 소채도 재배하고 있다. 이 곳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광주시 보호수제77호로 지정되어 있다. 마을 회관도 이 부락에 있다.

■ 중간말

윗도마치에서 퇴촌면사무소가 있는 광동리 방향으로 88번 지방도를 따라 내려가다가 광동교를 건너기 전 중간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은 농가 2호가 살고 있다.

■ 아래도마치

중간말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아래도마치가 된다. 도마리의 자연부락 중 맨 아래에 위치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응달말

중간말에서 길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문정공(文靖公) 최 항(崔 恒) 선생의 묘가 있는 마을로 최 항의 종손 1가구와 묘를 관리하는 묘직(墓直)이 살고 있다. 도마리에서 가장 음지(陰地)에 속해있는 곳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부락에는 최 항 선생과 그의 아들의 묘소도 있다.

■ 도장골

응달말에서 무수리(無愁里)로 가는 방향의 골짜기를 말한다. 예전에 몰래 시신(屍身)을 묻는 것을 도장(盜葬)이라고 하였는데, 이 곳에 그런 일이 비밀비재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도룡고개

도마리에서 남종면 삼성리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즉 이 고개를 넘으면 삼성리를 경유하여 팔당댐에 다다른다.

■ 장작골

이 골짜기에서 예전에 장작(火木)을 많이 생산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중부면 상번천리에서 도마치고개를 넘어 도마리에 들어서면서 첫 번째 좌측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절골

예전에 이 골짜기에 작은 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절이 있던 골짜기라고 하여 '절골' 이라고 부른다. 윗도마치에서 왼쪽 골짜기이다.

■ 느락골

중간말에서 마주보이는 골짜기를 말한다.

■ 북덕고개

또 하나의 삼성리로 넘어가는 고개인데, 이 고개는 붉은 흙으로 덮여 있어 '붉덕' 이라는 방언으로 지어진 이름이다.

■ 양지말

도마리 삼거리에서 도룡고개를 넘어 가기 전, 양지쪽에 있던 마을로서 예전에는 몇 호의 농가가 살았으나, 지금은 인가(人家)는 없다.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도마치고개-굴뚝고개

현재의 도마치 고개가 아니고, 예전에 다니던 도마치를 말한다. 마치 굴뚝이 서 있는 듯 가파른 고개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 고개로 말미암아 도마치(倒馬峙) 즉, 말이 넘어지는 고개라는 설화가 탄생하였다고 한다.

■ 제참박골

장작골에서 도마리로 내려오면서 다음 골짜기를 말한다.

■ 무수리골

도마리에서 무수리로 넘어가는 길에 펼쳐진 골짜기를 말한다. 무수리로 가는길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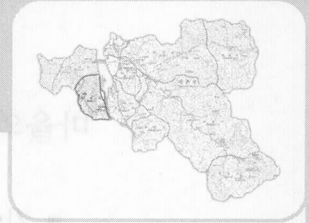
■ 능골

능자리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확실한 근거는 없다.

■ 새미골

절골에서 윗도마치 쪽으로 능선 하나를 넘어서면 새미골이다. 물 좋은 샘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지금도 그 샘이 있다.

8. 무수리(無愁里)



마을의 유래와 위치

이 마을은 조선조 말 대한제국시대까지는 초월면 지역이었으나, 1914년 일제가 행정 구역을 통폐합하면서 퇴촌면 관할구역으로 편입되었다.

옛날부터 광산 김씨(光山 金氏)의 세거지(世居地)로서 이 곳이 물이 맑고 산수가 수려해 사람들이 모두 장수(長壽)하고 근심 없이 신선(神仙)과 같이 살아 왔다고 하여 '무수리(無愁里)'라고 불려왔다. 다른 이름으로 '무술', '무시울'이라고도 한다.

퇴촌면에서 가장 산골에 있는 마을로 외진 마을이다.

퇴촌면 도마리에서 광동리로 향하여 가다가 우측으로 태허정 최 항 선생의 묘소가 있는 곳을 지나 고개를 넘어가면 무수리가 나온다.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

마을의 문화유적

■ 김익훈(金益勳)의 묘



김익훈 묘 전경



김익훈 신도비

이 마을은 광산 김씨(光山 金氏)의 세거지(世居地)로서 그들의 선조(先祖) 묘역(墓域)이 있다. 무수리 산4번지에는 김익훈(金益勳)의 묘와 신도비가 있는데, 그는 광산 김씨(光山 金氏)로서 조선시대 성리학(性理學)의 대학자(大學者) 김장생(金長生)의 손자이며, 조선 숙종(肅宗)대의 문신(文臣)으로 인조(仁祖) 때에 음직(蔭職)으로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현종(顯宗)때에 수원방어사(水原防禦使)를 거쳐 광주부윤(廣州府尹) 숙종(肅宗)대에 충융사(摠戎使)와 어영대장(御營大將)을 역임하였다. 서인(西人)의 맹장으로 숙종(肅宗)6년(1680)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남인(南人)을 축출, 보사공신(保社功臣), 광남군(光南君)에 봉해졌다. 숙종15년(1689)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남인(南人)이 정권을 장악하자 평안도 강계로 유배, 투옥되었다가 풀하였다. 사후(死後)에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추증되었다. 시호(諡號)는 충헌(忠獻)이다.

■ 김상약(金相岳)의 묘

경종4년(1724)~순조15년(1815).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본관은 광산. 자는 순자(舜咨), 호는 위암(韋庵). 아버지는 성택(聖澤)이다.

친척이 왕실과 혼인하여 그 부귀를 누리게 되자 이를 싫어하여 벼슬에 나가지 않고 관악산에 숨어 살았다.

글을 즐기되 특히 『주역(周易)』에 관심이 깊어 여러 학자들의 주해(註解)를 섭렵하여 근세(近世)

의 역학(易學)을 총망라한 10여 만자의 『산천역설(山天易說)』을 편찬하였다.

정조(正祖)가 그의 현명함을 알고 홍릉참봉을 제수하였다. 이어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거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저서로는 『위암시록』(韋庵詩錄)이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묘 앞에는 신도비가 있다.

그 외에 김익훈의 아들 김만채(金萬採)(병조참판), 손자 김진상(金鎭商)(영조(英祖)대 대사헌(大司憲)·좌참찬(左參贊)) 등 많은 묘소가 있다.



김상약 신도비

■ 새끼무술

퇴촌면 도마리에서 무수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무술고개' 라고 하는데, 고개를 넘기 전에 있는 작은 마을로 지금도 3가구가 살고 있다. 이 곳을 '새끼무술' 이라고 한다.

■ 아래무술

원래는 경안천 변에 명들마을이 있었는데, 을축년(乙丑年)(1925) 대 홍수 때에 마을이 침몰되어 일부는 정지리(亭支里)로 갔고, 일부는 무수리의 아래 골짜기로 와서 정착하면서 '아래무술' 이라고 불려왔다. 지금은 이 마을이 무수리의 중심마을이 되었다.

■ 윗무술

광산 김씨(光山 金氏)들이 이 곳에 묘를 쓰면서 세거(世居)하여 온 마을이다. 이 마을이 무수리의 중심마을이었으며, '윗무술' 이라고 불려왔다.

■ 절골

윗무술마을과 아래무술마을 중간 좌측에 있는 골짜기인데, 예전에 절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무재골

절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무재골' 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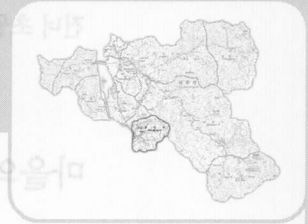
■ 무지개고개

무수리에서 중부면 상번천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무지개고개' 라고 부른다.

■ 원도박골

아래무술에 있는 골짜기이다.

9. 원당리(元堂里)



마을의 유래와 위치

이 마을은 1914년 이전까지는 초월면 관할이었다. 1914년에 일제가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면서 퇴촌면 지역으로 편입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이 마을에 금척원(金尺院)이 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원당'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또 일설에는 옛날 이 마을 출신의 장수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이 마을의 으뜸 되는 사람이라 하여 그의 집을 '원당'이라고 하고, 마을 이름을 '원당리' 혹은 '원당이마을'이라고 불렀다는 전설도 있다. 원당은 원당의 방언이다. 또 하나의 유래는 이 마을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큰 연못이 있는데, 아무리 날씨가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 원지(元池)가 있었다고 하여 '원당'이라는 마을 이름이 생겼다고도 한다.

남으로는 초월읍 무갑리와 접해 있고, 북으로는 정지리·광동리, 서쪽으로 경안천을 건너 초월읍 서하리와 연결해 있다.

마을의 문화유적

■ 조선백자 도요지

이 마을 뒤에는 공동묘지가 있고 그 밑에서 조선백자 도요지(陶窯址)가 1개소 발굴되었다. 이 곳에서는 백자 대접·접시, 그리고 잔이 발굴되었다.

■ 태봉(胎峯)

이 마을에 조선왕실의 왕자의 태(胎)가 묻혔던 태봉이 둘이 있다. '앞태봉'·'뒤태봉'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는 1934년 일본인 고고학자(考古學者)에 의하여 맨 처음 발견되었는데, 그 때에 발굴된 것은 지석에 만력28년(1600) 6월 '인시생왕자아기씨태'(萬曆28年6月寅時生王子阿只氏胎)라고 새겨졌고, 선조(宣祖)의 제11왕자 경평군(慶平君)의 것으로 판명되었다.⁹⁾ 두 번째는 1961년 도굴꾼들이 도굴(盜掘)하여 캐낸 태함(胎函)을 마을사람들이 붙잡아 관에 신고하여 발견된 것이 있는데, 백자(白磁)로 만들어진 태 항아리와 대리석으로 만든 지석(誌石)이 나왔는데, 지석에는 홍치18년(1505) 2월 19일 해시장(弘治18年2月19日亥時藏)이라고 새겨져 있고 홍치14년 2월 초4일 미시생(弘治14年2月初4日未時生) '왕자돈수아기씨태'(王子敦壽阿只氏胎)라고 새겨져 있었다. 발견된 태 항아리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원댕이마을

이 마을의 중심마을로 함양 박씨(咸陽 朴氏)의 세거지이다. 이 마을은 배산임수(背山

1) 미술사학연구(구고미술)56-57권에서 확인함. 윤무병(尹武炳) 기록.

臨水)형의 지세(地勢)로서 뒤는 산으로 에워싸여 있고, 마을 앞은 경안천이 흐르고 있다. 예전에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는 교통이 불편하였으나 지금은 마을 앞으로 108번 지방도가 개설되어 교통의 불편함을 많이 해소 하였다.

■ 가새골

원당리의 맨 가장자리에 있다고 하여 '가새이골' 이라고도 부른다.

지금은 이 곳에 일본군정신대에 끌려갔던 할머니들이 거쳐하는 <나눔의 집>이 있다.

■ 송문골

송문들이 변하여 '송문골' 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의 <나눔의 집> 근처의 들이었는데, 지금은 주택이 들어서 있다.

■ 명탁골

원당리 마을 앞을 흐르고 있는 하천을 '원당천' 이라고 하는데, 그 주변을 '명탁골' 이라고 하며, 지금은 취락지가 형성되어 주택이 몇 채 들어서 있다.

■ 무턱골

원당리와 초월읍 무갑리 사이의 산 옆으로 있는 골짜기인데, 지금은 10여 호의 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 양지말

원당리의 중심 마을로 함양 박씨(咸陽 朴氏)들의 세거지이다. 양지바른 곳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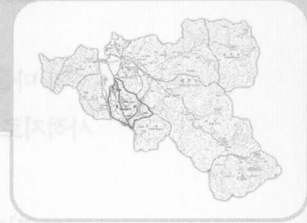
■ 무력골

양지말에서 남쪽 산을 넘으면 20여 호의 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이 곳이 ‘무력골’이다.

■ 능너머

원당리 북쪽 산너머 골짜기인데, 예전에 왕실에서 능자리로 잡았던 곳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순천 김씨(順天 金氏)들의 묘소가 있고, 재실도 세워져 있다.

10. 정지리(亭枝里)



마을의 유래와 위치

이 마을은 조선조 말 대한제국 때까지는 정자동(亭子洞)과 지위동(枝漚洞)으로 두 마을이었으나, 1914년 일제 강점기에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면서 정자동의 '정(亭)'과 지위동의 '지(枝)'를 따서 '정지리'라는 리명(里名)을 만들었다.

이 마을은 예로부터 풍부한 농업용수와 기름진 옥답(沃畝)이 많아 풍요로운 마을이다. 퇴촌면소재지인 광동리에서 108번 도로를 따라 서남쪽으로 향하여 2km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의 문화유적

■ 조선백자 도요지

이 마을 능골과 정자동에서는 조선 백자 도요지가 4개소 발굴되었다. 그 중 3개소는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다. 발굴된 유물은 백자 대접·접시·잔 등이다.

■ 정자동(亭子洞)(정지2리)

예전에 이 마을에 좋은 정자(亭子)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지위동(枝渭洞)(정지1리)

조선시대에 한양의 명문거족(名門巨族)의 자제(子弟)들이 이 곳에 내려와 한가롭게 낚시질을 하는 것이 마치 강태공(姜太公)과 같고, 그 경치가 삼국지(三國志)에 나오는 중국 의 기산(祁山)에서 위수(渭水)를 바라보는 듯 하다고하여 '기산위수(祁山渭水)'를 줄여 '기위'라고 했던 것이 내려오면서 '지위(枝渭)'로 바뀌었다고 한다.

■ 곱바위

지위마을에서 관음리로 넘어가는 도로 우측에 있는 바위를 '곱바위'라고 하는데, 바위가 커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 광배기고개

지위 마을에서 관음리 절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광배기고개'라고 하기도 하고, '작은 염티고개'라고도 한다. 이 고개를 넘어 우측으로 가면 관음리 절골 마을이고, 좌측으로 가면 광동리 '광복동 마을'(속칭 광배기)로 갈 수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능골

누구의 묘인지 확인이 되지 않은 커다란 무덤이 광배기 고개 능선에 있는데, 능 같은 산소가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대감우물

능골 밑에 있는 우물인데, 조선시대에 백자를 굽던 큰 가마가 이 곳에 있었고, 가마에서 작업하는 것을 관리·감독하던 번조관(鑪造官)이 이 곳에 들러 마시던 우물이라 하여 '대감우물' 이라고 불려왔다.

■ 덕밭들

정자리 마을 앞 경안천변에 있는 밭들인데, 장마가지면 해마다 고운 흙이 밭에 쌓여서 농작물이 잘 되어 덕을 본다고 하여 '덕밭들' 이 되었다.

■ 도랏들

정자동 마을에서 지위동 마을로 다닐 때, 산밑을 돌아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뒷골

정자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 뒷절

지위동 마을 뒷산에 있는 작은 암자를 '뒷절' 이라고 불렀다.

■ 마산(馬山)

지위동에 있는 동산인데, 말의 궁둥이 같은 모양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 먼들

정지리에서 광동리까지 가도록 펼쳐진 들판이어서 ‘먼 들판’이라는 뜻이다.

■ 목내미

먼들에는 물이 귀해서 농부들이 목이 말라도 먹을 물이 귀하여 ‘목내미’라고 하였다.

■ 무당골

마산 골짜기를 ‘무당골’이라고 하는데, 이 곳에 예전에 무당이 살던 곳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 방건장골

무당골의 맨 위쪽인데, 마치 방안 같이 겨울철에도 따뜻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뱃나리

지위동 마을에서 무수리 마을로 가는 배를 타던 나루터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사기덤불

사기를 굽던 가마터에서 사금과리를 쌓아 두었던 덩불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 사마루보(洑)-효종보(孝宗洑)

경안천 하류이며, 정지리 앞 하천이고, 사마루(초월읍 서하리) 앞 하천인 이곳에 농용수를 쓰기 위한 보(洑)가 예전부터 있다. 이 보를 ‘사마루보’라고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효종보(孝宗洑)’라고도 부른다. 효종(孝宗)이 병자호란(丙子胡亂) 후에 심양(瀋陽)의 볼모 생활에서 풀려나, 인조(仁祖)에 이어 왕위(王位)에 오르자 북벌정책(北伐政策)을 세우

면서 군량미(軍糧米)의 확보를 위하여 농업용 관개수(灌溉水) 시설을 증설할 때 이 보(伏)가 세워졌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 숲머리

정지리와 광동리 사이에 외딴 주막(酒幕)이 있었는데, 이 곳을 ‘숲머리’라고 하였다. 지금은 주막이 없어졌다.

■ 영산(靈山)

정지리에 있는 산인데, 매년 정월에 산제사를 지내던 곳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 잔데미고개

예전에 정지리에서 원당리로 넘어 다니던 고개를 말하는데, 과히 높지 않은 고개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중투말

정지리가 자연부락으로 3개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자동과 지위동 중간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 진밭들

경안천 하류인 정지리 앞 하천변에 있는 진흙밭인데, 밭이 몹시 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행정나무들

정지리 앞들에 있는 밭이름이다. 밭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농사를 지으며 김매기가 매우 힘이 들었다고 한다. 마누라가 도망을 칠 정도로 김매기가 힘이 들었다고 전한다.

■ 형제바위

사마루보 옆에 두 개의 바위가 나란히 있는데, 마치 형제가 오순도순 앉아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황새모퉁이

경안천 하류인 정지리 마을 앞 하천은 예전에 철새의 먹이가 풍부하여 황새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다.